

한미일 정상회의의 다른 평가... “글로벌 중추국” vs “들러리 외교”

국힘 “물 테이커’ 아닌 ‘물 메이커’로 우뚝 서”

민주 “대중국 압박 속제만...국익 없는 퍼주기”

여야는 20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전환점으로 ‘글로벌 중추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의 실체가 없는 들러리 외교만 보였다고 혹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물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물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 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 가로서, 세계 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

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것”이라며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직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3국 정상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켜세웠다.

또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며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 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속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뺏기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혀를 찼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중국 패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미국이 반도체·배터리라는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 가는데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



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오염수 처리와 관련 ‘일본, 한국을 포함해 국

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반박했다.

변용일 기자

이재명 “국민 억압하는 국가폭력...역사가 용서 안해”

‘이화영 허위 자백’ 보도에 “조폭 그 이상” “윤석열 정권 무능 덮으려 국가폭력 자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쌍방을 그를 대복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국폭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해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며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짧은 글과 함께 ‘이화영, 쌍방을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을 그를 회장의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증거의견서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변호인의 중도 퇴장으로 1시간 만에 파행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가폭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때 조직폭력 소위 조폭이 문제가 됐고 또 학교폭력이 문제가 됐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고 하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폭력 문제를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이라며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폭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런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폭정권부터 폭력 문제에서 먼저 벗어나달라”고 경고했다. 서선욱 기자

민주 “정기국회 중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는 명백한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중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본인 사건으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

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대표가 결단해 제시한 해법을 비틀어 다시 국회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겠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어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 만큼 지금 민생과 경제가 한가하다. 여당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며 “아무리 눈썰미 다시 봐도 국정을 이끄는 여당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국정은 뒷전이고 정략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영장청구를 이용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여당의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본인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7월 의원총회를 통해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포기를 선언하며 해석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이슬비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